

제주성 운주당 유적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5

제주성 운주당 유적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5

목 차

I. 조사 개요.....	5
II.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6
1. 자연·지리적 위치와 환경 /6	
2. 고고학적 환경 /8	
3. 제주성(濟州邑城)의 역사적 배경 /12	
4. 운주당 문헌조사 /13	
III. 조사 내용.....	18
1. 조사 방법 / 18	
2. 시굴조사 트렌치별 조사 내용 / 18	
IV. 조사 결과.....	22
V. 조사단의견서.....	24
부록	
자문위원 의견서 / 26	
도판 / 29	
발굴조사보고서 초록 / 47	

도면목차

-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지형도(국토정보지리원 1/25,000) / 7
- 도면 2.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정보지리원 1/5,000 수치지형도) / 9
-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일제시대) / 10
- 도면 4. 조사대상지 지적도(현대) / 10
- 도면 5. 조사대상지 트렌치 배치도 / 19
- 도면 6. 트렌치 1,2 유구배치도 / 20

삽도목차

- 삽도 1. 탐라순력도 제주조점(濟州操點) / 17

사진목차

-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 ②) / 31
- 도판 2. 조사대상지 전경(① : 1108, 1109번지 일대, ② : 1108-28번지 일대) / 32
- 도판 3. 트렌치 1(① : 조사 전 전경, ② : 조사 후 전경, ③ : 토층) / 33
- 도판 4. 트렌치 2(①, ②: 조사 전 전경) / 34
- 도판 5. 트렌치 2(① : 조사 후 전경, ② : 서편 구들 시설 전경, ③, ④: 서편 구들 시설 하부 구조, ⑤ : 동편 구들 시설 전경, ⑥ : 동편 구들 시설 세부, ⑦: 동편 구들 시설 벽석) / 35
- 도판 6. 트렌치 2(① : 초석 배치 모습 및 세부) / 36
- 도판 7. 트렌치 2 외곽 초석(①~④), 트렌치 2(①: 조사 후 전경) / 37
- 도판 8. 트렌치 3(①, ② : 조사 전 전경) / 38
- 도판 9. 트렌치 3(① : 조사 후 전경, ② : 서편 축대, ③ : 동편 축대, ④, ⑤ : 후대건물지, ⑥ : 토층, ⑦ : 출토유물) / 39
- 도판 10. 트렌치 4(① : 조사 전 전경, ② : 조사 후 전경, ③ : 토층) / 40
- 도판 11. 트렌치 5(① : 조사 전 전경, ② : 조사 후 전경, ③ : 토층) / 41
- 도판 12. 트렌치 6(① : 조사 전 전경, ② : 조사 후 전경, ③ : 토층) / 42
- 도판 13. 트렌치 7(① : 조사 전 전경, ② : 조사 후 전경, ③, ④ : 트렌치 남편 돌담, ⑤: 토층) / 43
- 도판 14. 자문회의 전경(①, ②) / 44
- 도판 15. 조사대상지내 출토유물 / 45

I. 조사 개요

1. 조사 명 : 제주성 운주당 유적 시굴조사

2. 조사 목적 및 경위

제주성 내의 주요 건물 중 하나인 운주당터에 산재되어 있는 유구 및 유물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고고학적 자료 축적 및 체계적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문화재 보존·정비방향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2015년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가 제주시에 접수되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에 따른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결과, 제주성 내 장대가 있었던 운주당터라 추정되고 현장답사에서 기와편을 비롯하여 건물지 부속시설인 주초석이 확인되고 있어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문 의견에 따라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재)제주고고학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3. 조사대상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09번지 외 5필지

4. 조사 면적 : 2,047m²

5. 조사 기간 : 2015년 3월 19일~2015년 7월 1일 (실조사일수 5일)

6. 조사의뢰자 : 제주시청(제주시 문화예술과)

7. 조사 기관 :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8. 조사단 구성

- 단 장 : 강창화(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김용덕(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 조 사 원 : 윤중현(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준 조 사 원 : 오원홍(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송주란(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보 조 원 : 고정우(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자문 위원 : 차용걸(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양상호(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II.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09번지 외 5필지로 지리적으로는 동경 126°31'44.49"~126°31'45.04", 북위 33°30'40.98"~ 33°30'43.25"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인 운주당터는 제주시 북부 중앙부에 위치하는 동문로타리 동남쪽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해안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져 있다. 주변 하천으로는 산지천이 조사대상지에서 서쪽으로 230m 이격되어 남쪽에서 북쪽인 해안으로 흐르고 있다. 산지천은 한라산 기슭인 관음사 남쪽 해발 720m에서 발원하여 북북서 방향으로 유하하여 산지포구인 제주항으로 유출하는 하천이다. 산지천의 유로는 13.15km이다. 하천 지형은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직접 유하하는 하천으로 유로연장이 유로 폭에 비하여 좁고 긴 편이고 중·상류는 하상경사가 급한 산지계곡이며, 하류는 제주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형적인 도시하천이다. 산지천은 예로부터 산저천(山低川)으로 불리워졌으며 영주10경 중의 하나인 산포조어(山浦釣漁)의 장소이기도 한 제주시의 유서 깊은 하천이다. 또한 산지천은 하천을 따라서 유서 깊은 명소들을 거느리고 있다. 상류 지역에는 산천단을 끼고 흐르며 하류지역에서는 삼성혈 옆을 지나 제주성지와 오현단을 거쳐 제주항으로 흐른다¹⁾.

기후학적 위치는 위도상 온대기후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도 아열대 기후권에 위치한다. 연평균 기온은 15.2℃ ~ 17.0℃이고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은 2월로 -2.9℃이며 가장 높은 달은 8월로 37.4℃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581.1mm이지만 중산간 지대와 산악 지대의 고도를 감안하여 강수량을 보정하면 실제 강수량은 훨씬 더 증가하여 국내 최다우지에 해당한다. 제주시의 강수는 주로 온대성 저기압, 장마전선, 태풍에 의하여 발생한다. 온대성 저기압과 장마 전선에 의한 강수가 동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태풍으로 인한 강수는 상대적으로 북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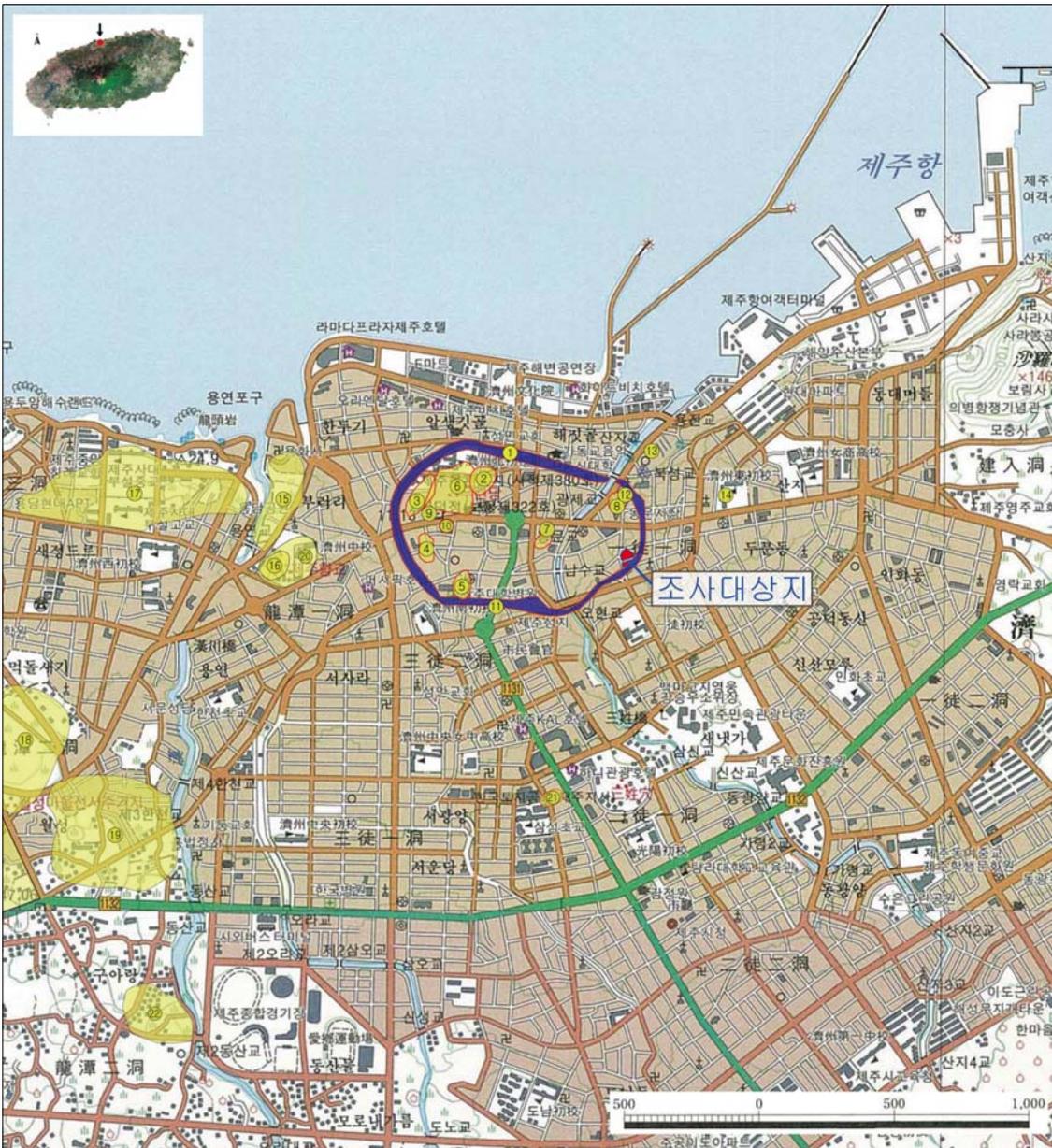
제주시의 토양은 추자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화산회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토양 모재는 현무암이며 국지적으로 스코리아를 모재로 하는 토양이 분포한다. 제주시는 장기간에 걸친 화산 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역이므로 토양 모재의 생성시기와 퇴적 양상이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토양 생성인자의 고도에 따른 수직적인 변화가 크므로 동일한 모재를 지닐지라도 토양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³⁾.

조사대상지의 토양은 동홍토로 동홍토는 미사식양질 하부에 식질계인 적황색토로서 미농무성(美農務省)의 새로운 분류방법에 의하면 fine silty over clayey, thermily family of Andic Hapludalfs에 속한다. 이 토양의 표토는 암황갈색의 미사질양토이고, 심토는 암갈색 또는 진갈색의 미사질식토이며 기층은 진갈색의 미사질양토이다. 토양의 모재는 화산회로서 저단구지에 분포한다. 토심은 100~150cm 범위이며, 암반까지의 깊

1) 제주시, 2005, 『濟州市五十年史 上卷』 .

2) 북제주군, 2006, 『북제주군지 상권』 .

3) 북제주군, 2006, 『북제주군지 상권』 .



범례

- | | | |
|---------------------|-----------------|-------------------|
| ① 제주성지 | ⑨ 관덕정 | ⑰ 용담동 유물산포지 3지구 |
| ② 삼도동 유물산포지 가지구 | ⑩ 관아 부속건물터 | ⑱ 용담동 유물산포지 4지구 |
| ③ 삼도동 유물산포지 나지구 | ⑪ 오현단 | ⑲ 용담동 유물산포지 5지구 |
| ④ 삼도동 유물산포지 다지구 | ⑫ 공진정터 | ⑳ 용담동 유물산포지(제주향교) |
| ⑤ 삼도동 유물산포지 라지구 | ⑬ 영은정터 | ㉑ 이도동 유물산포지 나지구 |
| ⑥ 삼도동 제주목관아지내 유물산포지 | ⑭ 연무정터 | ㉒ 오라동 유물산포지 |
| ⑦ 이도동 유물산포지 가지구 | ⑮ 용담동 유물산포지 1지구 | |
| ⑧ 건입동 유물산포지 | ⑯ 용담동 유물산포지 2지구 | |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지형도(국토정보지리원 1/25,000)

이는 2m 이상이다. 염기포화도는 표토와 심토 상부를 제외하고는 보통 35% 이상이며 토양반응은 매우 강한 산성 내지 강한 산성이다. 유사토양으로는 송악, 미악, 금악, 대정 및 안덕통 등이 있다. 동흥통의 모재는 현무암의 홍적층으로서 토양배수는 양호하고 유거가 보통이며, 투수성은 느리다. 동흥통의 대부분은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초지 및 임지이다⁴⁾.

2. 고고학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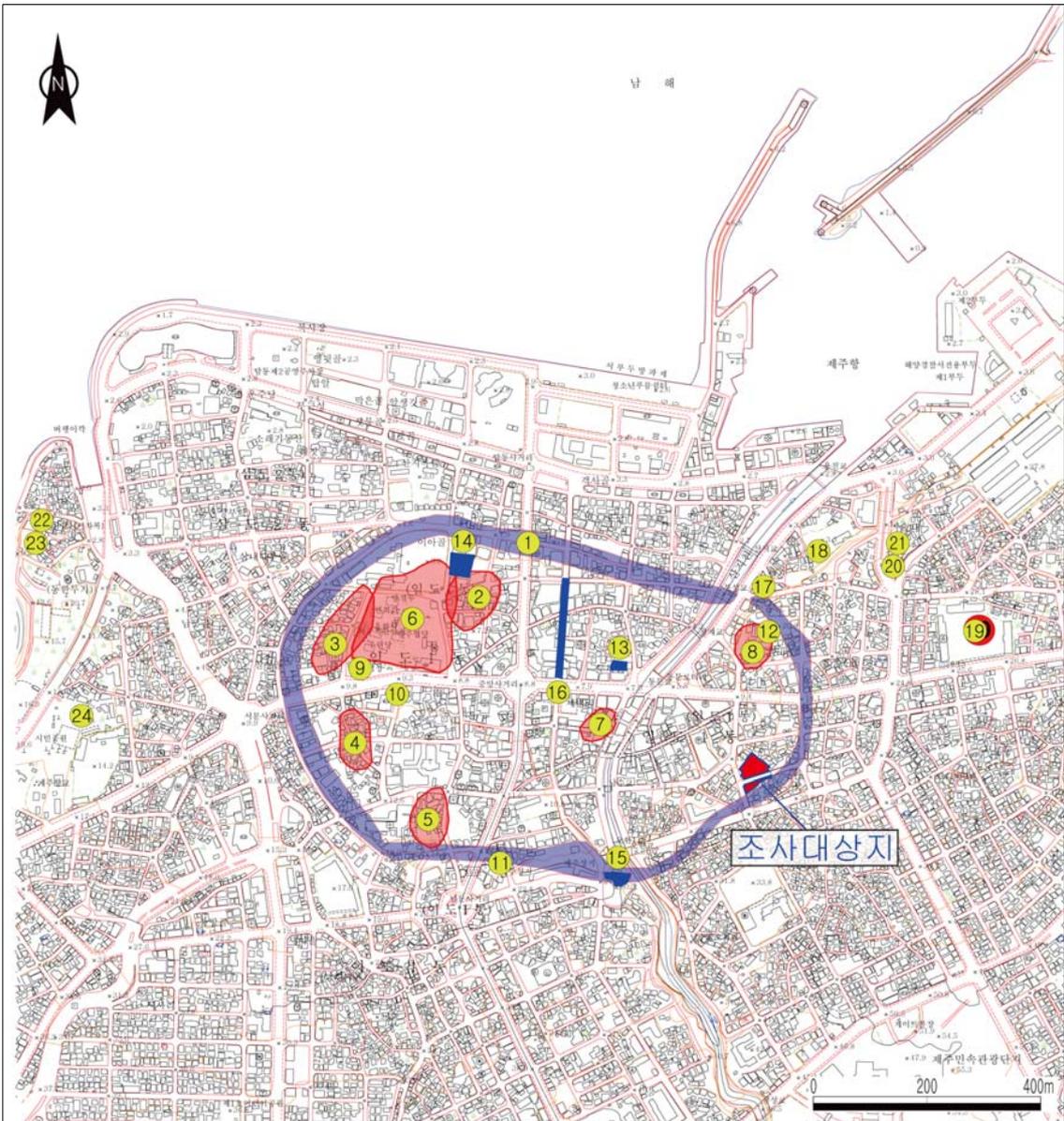
조사대상지인 일도동 일원은 주변으로 산지천을 끼고 있어 예부터 제주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일찍부터 인구가 밀집되어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된 관계로 고고학적 조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일도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주로 목관아지를 중심으로 한 건물지 발굴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 유적은 크게 유물산포지와 조선시대 관아·건물지·제사 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유적을 성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하고 있는 일도동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물산포지는 삼도동유물산포지, 건입동 유물산포지, 이도동 유물산포지가 있다. 삼도동유물산포지는 통일신라시대(탐라시대)로 추정되는 삼도동유물산포지 나·다지구와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가지구로 구분된다. 통일신라시대(탐라시대)로 추정되는 삼도동유물산포지 나·다 지구는 제주 목관아지내 조선시대 건물지 하층인 황갈색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조선 전기 담장지와 그 아래층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인 냇돌무더기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유구는 주거지 내부의 화덕시설로 여겨지는데 냇돌 사이에서 고내리식토기편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구가 목관아지 아래층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용담동 제사유적과 관련하여 8세기 이후 탐라국 시대의 취락이 이 지역에 크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도동유물산포지 가지구는 제주성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일대는 태조 1년(1392년)에 제주향교를 설치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며, 제주목 중심지와 근접되어 있다. 지금은 제주북초등학교, KT&G 제주본부, 농협 등이 자리잡고 있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다. 지표상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 유물이나 유구는 없지만 지표하에는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북초등학교 화단및 도로공사시에 관아건물에는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기단석과 기와 조각들이 확인되었다.

건입동유물산포지는 지금은 교회와 일반주택들이 들어서 있지만 공터에 원통형 주춧돌 20여 개와 조선 양식의 기와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조선 말기에 김정목사가 건립한 삼천서당이 이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읍성 동문지와 근접되어 있어서 군사들이 주둔했던 건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도동유물산포지는 지금은 동문시장과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표상에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제주향교가 두 차례나 이 건되었던 곳이기도 하며, 제주향교의 창건시기를 명확히 기록한 금처예비(金處禮碑)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과거에 이 일대는 ‘향교전(鄕校田)’이라고 일컬어졌으며 이 일대에 제주향교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옛 향교터임을 입증하고 있다.

4) 흙토람(<http://soil.rad.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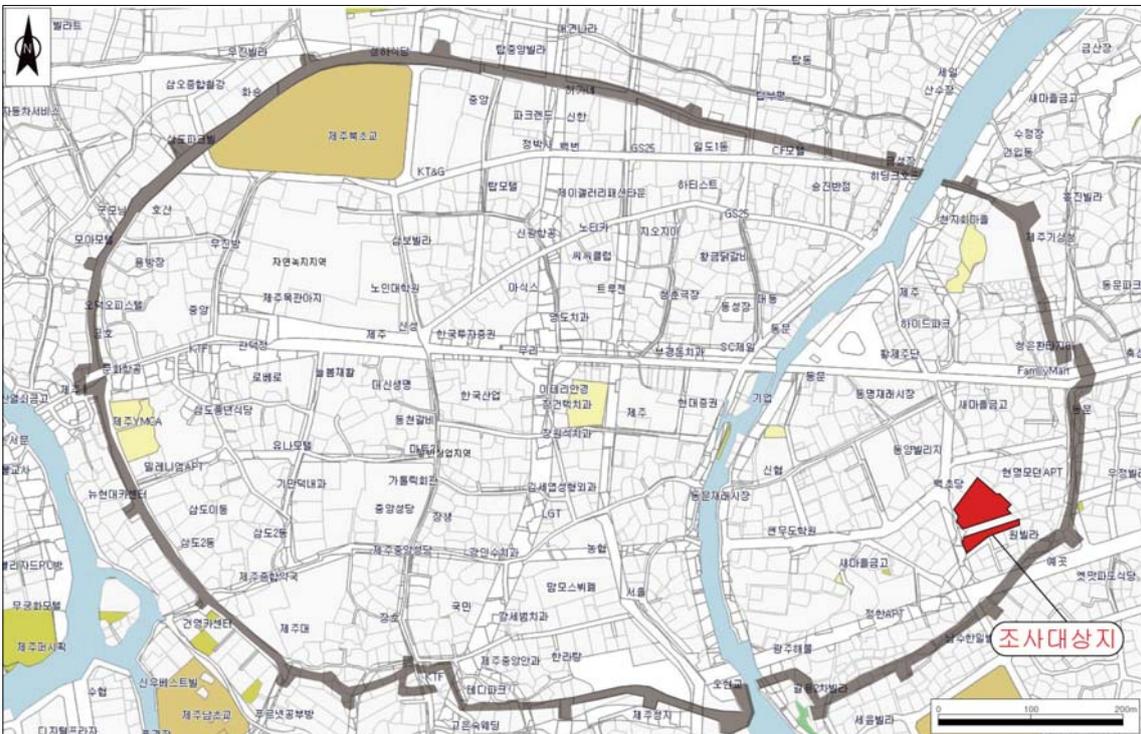
범례

- | | | |
|---------------------|------------------------------|--------|
| ① 제주성지 | ⑨ 관덕정 | ⑰ 고서흥비 |
| ② 삼도동 유물산포지 가지구 | ⑩ 관아 부속건물터 | ⑱ 영은정터 |
| ③ 삼도동 유물산포지 나지구 | ⑪ 오현단 | ⑲ 영무정터 |
| ④ 삼도동 유물산포지 다지구 | ⑫ 공진정터 | ⑳ 만수사지 |
| ⑤ 삼도동 유물산포지 라지구 | ⑬ 제일주차빌딩 시설공사부지내 유적 | ㉑ 동자복 |
| ⑥ 삼도동 제주목관아지내 유물산포지 | ⑭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 유적 | ㉒ 서자복 |
| ⑦ 이도동 유물산포지 가지구 | ⑮ 제주성지 누각 복원공사부지내 유적 | ㉓ 해륜사지 |
| ⑧ 건입동 유물산포지 | ⑯ 관덕로 11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 ㉔ 제주향교 |

도면 2.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정보지리원 1/5,000 수치지형도)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일제시대)



도면 4. 조사대상지 지적도(현대)

조선시대 관아·건물지유적으로는 관덕정과 목관아지, 관아 부속건물터 등이 있으며 제사유적으로는 오현단이 있다. 관덕정은 세종 30년(1448)에 신숙청 안무사가 병사의 훈련청으로 창건한 건물이다. 본래 3칸 건물이었던 관덕정은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와 개축 과정을 거쳤다. 지금의 건물은 1696년 대대적인 보수를 거친 후 최근 2003년에 다시 보수를 거친 모습으로 창호와 벽체를 가설하지 않고 사방이 모두 개방되었는데, 이러한 가구수법은 누정 건축에 흔히 보이는 양식이다.

목관아지는 고려시대에 탐라군의 중심지였고, 조선시대에는 대촌현으로 제주목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문헌상 이 일대에 있었던 관청 건물의 대략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종 17년(1435) 이후 부터다.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탐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여러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관아의 주요 시설인 동헌과 내아의 건물터 규모가 확인됨으로써 이곳이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중요한 유적지였음이 밝혀져, 제주목관아 남서쪽에 있는 관덕정을 포함하여 사적 제380호로 지정되었다.

오현단은 제사유적으로 굴림서원(橋林書院)의 옛 터에 조선시대 제주도에 유배되었거나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이곳 발전에 이바지한 다섯 사람을 배향하기 위해 조성된 제단이다.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굴림서원이 헐린 후, 고종 29년(1892) 제주 유림들이 조성하였다. 이곳에는 오현의 위패를 대신하는 높이 43~45cm, 너비 21~33cm, 두께 14~16cm인 조두석이 각자 없이 33~35cm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曾朱壁立’자가 새겨진 마애명과 오현과 관련된 사적과 서원 등 학교의 건립연혁 등을 후세에 오래토록 전하기 위하여 글을 새겨 넣은 비석 등이 있다⁵⁾.

이 밖에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제일주차빌딩 시설공사부지내 유적과 제주북초등학교 천연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부지내 유적이 있다. 제일주차빌딩 시설공사부지내 유적은 발굴조사를 통해 탐라시대~근·현대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었다. 탐라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수혈유구 3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로는 고내리 식토기와 회색도기, 마제석기 그리고 동물유체 등이 있다. 조선시대 유구로는 2기의 수혈유구와 2기의 소토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자기편과 기와편이 확인되었는데 이 시기의 유구는 목관아지에서 출토된 유물양상과 유사하여 관아건물과 관련된 시설로 파악하였다⁶⁾.

제주북초등학교 천연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부지내 유적은 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2011년 실시한 표본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탐라시대~근대에 이르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유물포함층과 수혈유구가 있으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석렬유구가 확인되었다⁷⁾.

5) 제주시·제주문화예술재단, 2011, 『-중보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

6) 제주시·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제일주차빌딩 시설공사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 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제주북초등학교 천연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부지내 표본시굴조사 보고서」.

3. 제주읍성(濟州邑城)의 역사적 배경

제주성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시 이도1동 1437-6번지의 3필지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성은 탐라국 수부(首府)의 성곽으로 오래 전부터 축성된 것이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의하면 태종 11년(1411) 정월에 제주성 수축을 명하였고,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 의하면 성 둘레는 910보라 하였다. 또한 석축으로 둘레 4,939척, 높이 11척이라 하였다. 이는 동쪽 산지천(山地川)과 서쪽 병문천(屏門川) 사이에 축성한 규모를 말한 것으로, 이 때 성내에는 우물이 없고 가락천(嘉樂川)이나 산지천(山地川)은 모두 성 밖에 있었다.

명종 20년(1565) 곽홀(郭屹) 목사가 부임하여 을묘왜란 같은 침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동성(東城)을 능성까지 확장하니,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에 의하면 둘레 5,489척, 높이 11척에 격대(擊臺) 27개, 타첩(塔堞) 303개가 마련되고, 동·서·남문이 갖추어졌으며, 동쪽의 산지천(山地川)에 남·북으로 수구문(水口門)을 설치하고 동성(東城) 위에는 장대인 운주당(運籌堂)을 세웠다고 한다. 이로써 가락천(嘉樂川)이나 산지천(山地川)이 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선조 32년(1599) 성윤문(成允文) 목사가 부임하여 성굽을 5척이나 늘리고 높이를 13척으로 높이는 대수축 공사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동·서·남문을 중수(重修)하여 좌우로 군영을 만들고 격대 27개 중 21개에 포루를 만들어 기와로 덮고, 남수구(南水口) 위에는 제이각(制夷閣)을 지으니 이를 남수각(南水閣)이라 통칭하였다. 이로써 제주성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정조 4년(1780) 김영수(金永綏) 목사는 큰 비에 산지천이 범람하여 민가에 피해가 많으므로 산지천 서쪽 바위로 간성(間城)을 축성하니 길이 551보, 높이는 9척이었다. 그리고 북쪽 간성에 수복문(受福門)을 세워 광제교(光濟橋)와 연결하고, 남쪽 간성에는 소민문(蘇民門)을 설치하였는데 이 문은 현종 13년(1847) 이의식(李宜植) 목사가 중인문(重仁門)으로 개칭하였다.

1925년까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 보존되다가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제주항(濟州港)을 개발하면서 성벽을 모두 헐어 바다를 매립하는 골재로 투석하였다.

지금 원형대로 남아 있는 제주성은 문화재로 지정된 오현단 남쪽 성곽(제주도 기념물 제3호)으로 170m 정도이다. 이곳 성벽의 외벽 높이는 지형에 따라 3.6~4.3m이고, 내벽은 5.3~6.9m이다. 성문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치성은 3개소가 보존되어 있으나, 산지천과 인접한 치성만 원형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 2개소는 보수가 이루어졌다. 원형대로 남아 있는 치성의 규모는 둘레가 27.5m, 높이 9m이고, 치성과 치성의 간격은 65~75m이다. 치성의 시굴조사를 통하여 'T'자형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축조방법은 협축으로 잔돌끼움을 한 허튼층 쌓기로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성돌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외벽의 기울기는 1.0~1.4:10으로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2008년 남문지의 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무암 암반층 위에 흑갈색부식토층(자갈, 기와, 도자기, 토기 등을 섞은 혼토층)을 판측하고 다시 그 위로 점토질토양을 다져 기

초층을 마련한 후 직경 50cm 이상 되는 할석들을 서로 맞춰 하단부 기초석렬을 만든 흔적이 확인되었다.

4. 운주당 문헌조사⁸⁾

동성(東城) 안에 있다. 지금의 제주시 동문시장 남쪽 언덕빼기에 해당한다. 1960~1970년대에 흥익보육원이 있었으며, 제주시에서 세운 유적지 표석이 있다.

조선(朝鮮) 명종(明宗) 21년(1566, 丙寅)에 목사 곽홀(郭屹: 재직, 명종 20년[1565, 乙丑] 12월~선조 1년[1568, 무진] 6월)이 동성(東城)을 물려 쌓고 높은 언덕에 운주당(運籌堂)을 세웠다. 즉, 장대(將臺; 장수의 지휘대)이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1765년경)에는, “이때에 곽홀(郭屹)이, ‘성(城) 동쪽의 신산口·루[神山旨]가 바로 높은 언덕이어서 적(賊)이 만일 상륙하게 되면, 이곳에 주둔하여 성 안을 내려다볼 것이다. 병가(兵家)에 이른바 성 밖에서는 엿보고 성 안에서는 헤아리는 격이니, 장수의 지모(智謀)가 세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실로 공수(攻守)에 큰 병폐가 된다.’고 생각하여, 사유를 갖추어 서면으로 조정에 보고하고 성을 물려서 새로 쌓았는데, 신산口·루[新山旨]를 에워싸고 새로 문을 만드니, 산지천(山池泉; 山池川?)이 성 안에 들어왔다. 장대(將臺)를 만들고 운주당(運籌堂)이라 명명하였다.” 하였다.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⁹⁾가 편역을 썼다. 『남환박물(南宦博物)』(李衡祥, 1704)에는 건물의 규모가 9칸이라 하였다.

숙종 9년(1683, 癸亥)에 목사 신경윤(愼景尹: 재직, 숙종 7년[1681, 辛酉] 12월~동 10년[1684, 甲子] 4월)이 개건(改建)하였다.

그런데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李源祚, 1841)과 『탐라지(耽羅誌)』(張寅植, 1850년경)에 수록된 “영조 19년(1743, 癸亥)에 안경운(安慶運)이 중수(重修)하였다.”는 기사는 착오인 듯하다. 왜냐하면, 이 두 책 외에 그러한 사실이 다른 책자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인식의 경우도 공해(公廩) 항목에서는 언급하였으나 선생안(先生案) 안경운 항목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신경윤과 김몽규 항목에서는 ‘愼景尹: 重創運籌堂’, ‘金夢燾: 重修運籌堂’이라 하였다.

영조 29년(1753, 癸酉)에 목사 김몽규(金夢燾: 재직, 영조 28년[1752, 壬申] 12월~동 30년[1754, 甲戌] 10월)가 개건(改建)하였다. 고종 29년(1892, 壬辰)에 화재로 소실되자 찰리사(察理使) 이규원(李奎遠)이 개건(改建)하였다. 지금은 없어졌다.

* 교수(教授) 황우헌(黃祐獻)의 기(記)

8) 문헌조사 원고는 고창석(前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前 제주고고학연구소장)이 작성하였다.

9) 이산해(李山海, 1539~1609): 본관 한산(韓山). 자 여수(汝受). 호 아계(鵝溪)·종남수옹(綜南睡翁). 시호 문충(文忠). 1561년(명종 16) 문과에 급제, 1578년(선조 11) 대사간에 이르러 서인(西人) 윤두수(尹斗壽) 등의 죄를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1590년 영의정에 오르고, 이듬해 정철이 세자 책봉[建儲] 문제를 일으키자 아들 경전(慶全)으로 하여금 정철(鄭澈)을 탄핵하게 하여 유배시켰다. 6세 때 글씨를 잘 써서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고 서화(書畫)에도 뛰어났다. 선조 때 문장팔가(文章八家)라 일컬었다. 조정에서는 동인(東人)에 속하였으나 동인이 남인(南人), 북인(北人)으로 갈리자 북인(北人)에 속하였다가 마지막에는 대북(大北)의 영수가 되었다. 저서로 『아계유고(鵝溪遺稿)』가 있다.

무릇 제주는 오랑캐의 바다를 경계로 하여 세 고을로 나누어졌다. 이곳은 예전의 탐라국(耽羅國)이다. 왜노(倭奴; 왜구)가 정신을 기울여 틈을 엿보는 길목에 해당하므로, 이곳을 방어하는 준비와 성을 지키는 방법이 진실로 다른 진(鎭)보다 몇 갑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어, 성지(城池)를 방어하는 도구가 전혀 준비가 없는 것은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에 누적된 일이 아니다.

점차 을묘년(명종 10년, 1555) 여름에 이르자, 해구(海寇; 왜구)가 왕성한 세력으로 제주를 휩박하였다. 이리저리 날뛰며 성을 포위하고 높은 언덕을 근거지로 삼아 성 안으로 바짝 다가붙어 연달아 활을 쏘고 돌을 던지니, 군진(軍陣)의 허실과 사졸(士卒)의 강약은 촛불에 비추어 보고 주판으로 셈을 하며 거북점을 쳐 아는 것 같았다. 대체로 난을 겪은 이후부터 성보(城堡)를 수선하는 방법은 마땅히 치밀했어야 하였으나 오히려 갖추지 못한 점이 있었다.

지난 을축년(명종 20년, 1565) 겨울에, 우리 사상 합하(使相閣下)인 포산(苞山)¹⁰⁾ 광홀(郭屹) 공께서 임금[九重]의 근심을 나누는 남쪽 제주의 목사(牧使)가 되었다. 군정(軍政)을 경계하여 엄히 하는 틈에 성지를 두루 살펴보니, “비단 동성(東城)의 축조만이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락천(嘉樂泉)이 예전에는 어떻게 하여 넘쳐흘렀으며, 지금은 어떻게 하여 말라버렸는가. 만일 성을 포위하는 변고가 있게 되면, 병사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장차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높은 언덕에서 포를 쏘는 것은 또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고, 마침내 개탄하여 성(城) 쌓는 일로 조정에 장계를 올려 보고하였다. 일꾼으로 온 백성들이 산지포구(山池浦口)에까지 성을 물려서 쌓으니, 성벽은 높고 치첩(雉堞)¹¹⁾은 우뚝하며 흐르는 샘은 기운차게 흘렀다. 무너진 옛 성의 치첩(雉堞)과 낮고 좁은 격대(擊臺)도 모두 마음속에 생각한 순서에 따라 눈가는 대로 진행하니, 한가지로 모두가 거듭 새로워졌다. 금성탕지(金城湯池)의 험준함을 대체로 누가 감히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아아! 다스리는 이 고을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변진(邊鎭)이요, 현명한 군후(君侯; 郭屹 목사)¹²⁾는 옛 사람을 능가하는 명장(名將)이다. 무기를 갖추고 병사를 독려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일 뿐이다. 그의 귀신같은 지모와 책략은 연회나 접대를 받는 자리[罇俎]를 벗어나지 않고 저절로 천리의 위엄을 절충하니,¹³⁾ 어찌 교전하여 칼싸움을 기다리며, 오랑캐들과 승부를 겨루겠는가.

크도다! 그의 평생의 순국의 뜻과 애군(愛君)하는 충정은 타고난 성품이며, 화평하고 자상한 덕행, 관대하고 측은히 여기는 도량, 청렴결백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지조는 실로 백성들의 마음에 젖었고, 사람들의 바라는 바에 합치되었으니, 어리석은 내가 어찌 그 사이에 군더더기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군자도 반드시 휴식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임기응변하는 책무를 저야 하므

10) 현풍곽씨(玄風郭氏)의 시조 광경(郭鏡)의 봉호(封號). 현풍 곽씨의 후손들이 시조 포산군(苞山君)의 봉호를 소중히 여겨 포산 곽씨(苞山郭氏)로 많이 부른다.
 11) 치(雉)는 적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공격하기 위해 성벽을 밖으로 내밀어 쌓은 곳을 말하며, 첩(堞)은 성벽 위에 몸을 숨기기 위해 쌓은 담이다.
 12) 군후(君侯)는 제후의 존칭이나, 여기에서는 제주 목사인 광홀을 지칭한다.
 13) 준조절충은 평화스러운 교제(交際)로써 적의 예봉(銳鋒)을 누르는 일로, 외교상(外交上)의 담판(談判)으로 국위(國威)를 빛내는 일을 뜻한다.

로 마침내 모든 형편을 고려하여, 공장(工匠)을 부리고 재목을 다듬어서 여기에 당(堂) 하나를 지었다. 그 당(堂)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는 수려함을 겨루고, 둘러싼 바다에는 기이함을 자랑하니, 모서리의 단정함과 단청의 아름다움은 칭찬하여 드러낼 필요가 없다. 뒷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것이 합하(閣下; 곽홀)의 뜻임을 알고 변란이 있을 때에는, 이곳에 거처하며 이곳에서 호령하고 이곳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다. 피차간에 서로 대치하게 된다면, 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할 것을 생각하고, 성을 포위하여 풀지 않으면, 충분히 휴식한 군대로 피로에 지친 적의 허점을 이용할 것을 생각하고, 적이 너무 많아 대적할 수 없으면, 기묘한 계책을 내어 허점을 찌를 것을 생각하고,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실패를 던고 공(功)을 이룰 것을 생각하니, 이것이 이른바 최선책을 생각하여 움직이되, 움직이더라도 오직 적당한 때에 하여야 하는 것이 지당함을 말하는 것이다.

적이 비록 억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혼을 빼앗기고 숨어 도망갈 틈이 없을 것이니, 바람과 우레 같은 재앙과 별과 전갈의 방자한 독이 있을 것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그러니, 이 당(堂)의 설치가 어찌 한갓 적장을 업신여기고 노련한 자질을 본받기 위함이겠으며, 또한 어찌 산천의 명승을 탐하기 위함이겠는가.

때로 일이 없을 때에는, 바람이 부드러운 화창한 날, 이곳에 갓을 벗어 놓고 휴식을 취하며 거문고를 연주할 것이다. 백성 중에 살 곳을 잃은 자가 있으면, 그를 안정되게 할 방도를 생각하고, 굶주림과 추위를 울며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입히고 먹일 바를 생각하고, 추위와 더위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가 있으면, 쉬게 할 바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상공(相公)께서 높은 곳(운주당)에 있으면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 어찌 집집마다 어루만져 깨우치려함이 아니겠는가, 정사를 펴서 임금의 덕화를 널리 선양하는 것이 어찌 침체된 것을 일으키고 피폐한 것을 고치려 함이 아니하겠는가. 활쏘기를 통해 덕행을 살피는 것이 어찌 병졸들을 훈련시켜 적의 능멸을 막으려 함이 아니하겠는가.

아아, 기틀을 깊게 하고 사물을 빛나게 하며, 계책을 운용함이 신과 같은 교묘함은 사람들이 옛보아 헤아리고 힘을 다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후세 사람들이 이 당에 올라서 계책을 세운 결과가 좋으면, 그의 계책을 칭찬할 것이며, 이 사람과 비교될 것이다. 만약 모든 면에 식견이 좁은 구차한 계책이라면, 마침내 경솔히 생각과 천박한 꾀로 돌아가 저저로 재앙과 실패를 불러올 것이다. 대체로 이 사람의 아량(雅量)이 훌륭하다면, 응당 자방(子房)¹⁴⁾의 운주(運籌; 필승의 계책)와 천년을 넘어서도 두 사람의 일이 아주 비슷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 당의 아름다움은 주(周) 나라 소공(召公)이 그 아래에서 쉬었다는 팔배나무¹⁵⁾와 같이 후세에 와서도 잊혀 없어지지 않고 무궁하게 찬양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그가 끼친 사랑[遺愛] 또한 심원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건대, 영천(靈川)¹⁶⁾ 신석계(申石溪)¹⁷⁾ 군(君) 역시 뛰어난 재주와 큰 그릇으

14) 자방은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건국 공신인 장량(張良)의 자(字)다.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이다.
15) 소백은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동생 소석(召奭)이다. 그의 형 주공(周公)과 함께 어린 조카 성왕(成王)을 보필하였다. 소백지감당(召伯之甘棠)은 소백의 선정과 덕화에 감동한 백성들이 그가 남국(南國)을 순행할 때 팔배나무(甘棠) 아래에서 잠시 쉬자 그 지방 사람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여 그 나무를 베지 말라고 노래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
16)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高靈)의 옛 이름이다.

로서, 조정 대신[朝右]들이 관리를 추천할 때 이곳 제주의 판관(判官)이 되었다. 곽홀 후(侯)의 뜻을 따라 크나큰 계책을 도왔으니, 함께 명예로운 이름을 길이 전하게 된 것은 가당한 일이다.

나는 세간의 미미한 존재로서 우연히 곽홀 합하(閣下)의 인정을 받아 외람되게 막부에서 모신지 몇 년이 되었다.

무진년(선조 원년, 1568) 봄에 비로소 집을 세워 운주(運籌)라고 편액하고, 고을의 원로들을 부르고 장수들과 보좌관들을 함께 거느려서 연회를 베풀고 낙성식을 하였다. 그래서 나에게 기(記)를 쓰도록 명하였는데, 시문을 짓는 재주가 천박하고 조약함을 사양하지 못하고 글을 지어 기록하니, 글의 침삭꺼리를 남기게 되었다.

17) 신석계는 1566년 5월부터 1568년 10월까지 제주판관으로 재직하다 의빈도사(儀賓都事)로 전임되어 떠났다.

Ⅲ. 조사 내용

1. 조사 방법

조사대상지는 제주시 일도1동 1109번지 외 5필지이며 면적은 2,047㎡이다.

조사대상지는 남고북저의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이며 지형에 맞춰 단을 지어 축대를 축조하여 지면을 비교적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조사대상지 내부로 지형과 각 필지의 평면형태 장축방향에 맞춰 총 7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대가 가장 낮은 1109번지에 총 4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였으며 트렌치 1~3의 경우 지반의 장축방향에 맞춰 3×20m 2개소와 2×20m 1개소를 조사하였다. 또한 1109번지내의 남서쪽으로 단을 지고 올라가는 지점에 2×5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109번지에서 한단 올라간 1108번지에는 2×20m의 트렌치를 지반의 장축방향에 맞춰 설정하고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1108-28번지의 경우 지반 남쪽경계면에 높은 축대가 형성되어 있다. 축대의 하부 축조할 때 쓰인 현무암 할석이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하여 제주성의 일부로 추정되어 축대에 맞대어 2×15m의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트렌치 6의 경우 2×18m로 지반의 장축방향에 맞춰 구획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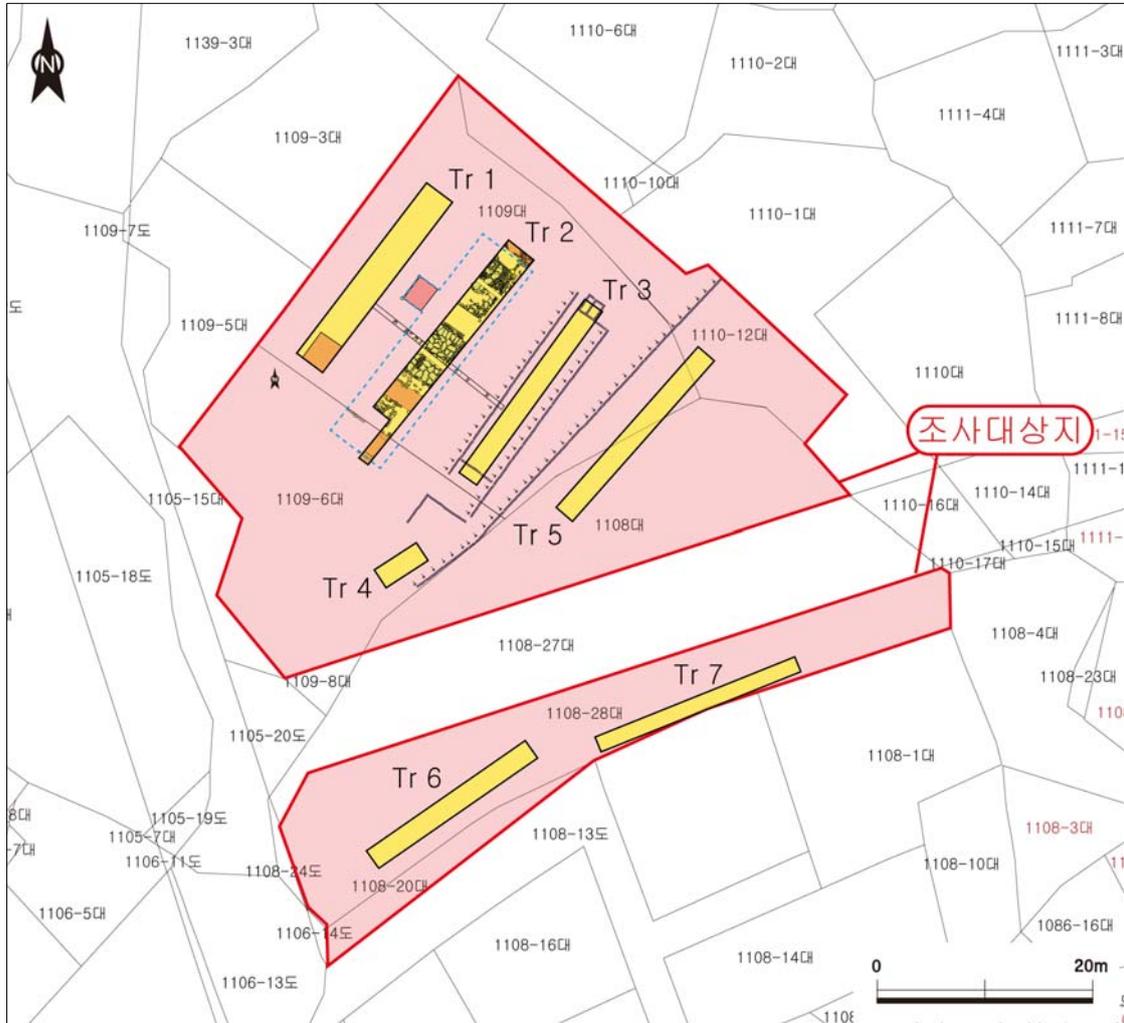
각 트렌치마다 유구가 확인되는 면까지 제토를 실시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생토면이나 암반층까지 제토를 실시하였다. 조사완료 후에는 각 트렌치별 층위와 트렌치 배치도 및 유구배치도를 도면으로 작성하였으며 트렌치 전경 및 세부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2. 트렌치별 조사 내용

1) 트렌치 1

트렌치 1은 조사대상지 북쪽 가장 낮은 1109번지에 설치하였다. 트렌치는 1109번지 장축방향에 맞춰 3×20m의 규모로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트렌치 서쪽과 중앙부에서는 시멘트로 마감한 건물지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시멘트 하단으로 현무암 할석을 이용하여 기단을 조성한 뒤 시멘트를 덧씌운 흔적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건물지에 시멘트를 덧씌워 그대로 사용했는지 다시 증측 했는지는 현재 조사과정에서는 불분명 하다. 트렌치 서쪽단면에서 토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층이 확인되었다. 1층인 경작층 하단으로 2층인 명갈색점토층이 확인되었으며 명갈색점토층 하단으로는 풍화암반층이 확인되었다. 2층은 문화층으로 판단되며 기와편을 비롯하여 현무암 할석이 확인되어 건물지로 사용했던 당시의 생활면으로 판단된다. 트렌치 내부토층은 북동쪽으로 갈수록 경작층 하단으로 복토층이 두텁게 확인되고 있어 깊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복토층은 문화층인 명갈색점토층을 교란시켜 풍화암반층까지 복토가 이루어졌다. 트렌치 내부 복토층에서는 기와편을 비롯하여 자기편이 소량확인 되고 있으나 명확한

건물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멘트 구조물 하부에 현무암을 이용하여 기반석렬을 조성한 흔적이 확인되어 기존 건물지를 증개축 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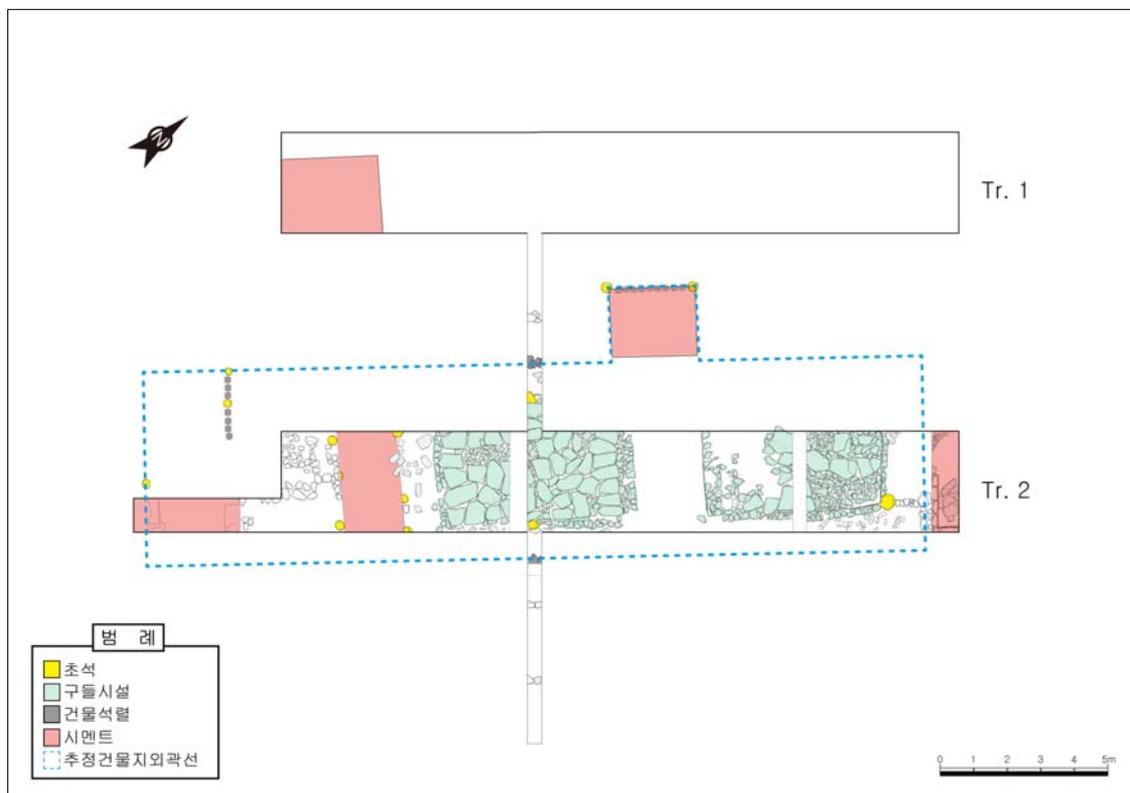


도면 5. 조사대상지 트렌치 배치도

2) 트렌치 2

트렌치 2는 1109번지 중앙부에 트렌치 1과 같은 방향으로 3×20m의 규모로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전 트렌치 내부에서는 다량의 기와편이 지표면에서 확인되어 수습을 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작층을 제토하자 기반석렬 및 초석 등 건물지의 내부 시설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내부에서 확인되는 초석은 원형으로 치석된 형태로 확인되었다. 초석의 지름은 20~40cm로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규모는 측면이 1칸이 약 370cm로 확인되었다. 정면의 규모는 초석이 전부 노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양끝 기반석렬의 간격은 측면이 5m, 정면은 23.2m로 추정된다. 건물지 내부에서는 구들이 북동쪽과 남서쪽 양단에서 확인되었다. 구들 상부로 구들장이 원형 그대로 확인되었다. 북동쪽에 비해 남서쪽 구들이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남서쪽의 경

우 구들의 규모는 550×370cm로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들장 주변으로 현무암 할석을 이용하여 외곽이 조성되었으며 구들장 사이로 사춤돌로 구들장 사이를 메웠다. 구들장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나 타원형 이루고 있으며 규모는 약 50×100cm 내외의 판석이다. 북동쪽 구들의 규모는 557×370cm으로 남서쪽의 구들과 규모는 거의 같으나 내부 구들장이 정교하게 놓여져 있지 않고 판석으로 만들어진 구들장은 일부에서만 확인되었고 다량의 현무암 할석을 이용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양쪽 구들 밖으로는 시멘트로 덧씌워진 시설물이 확인되었다. 시멘트 하부로는 현무암 할석으로 축조된 석렬을 비롯하여 규모가 작은 초석이 확인되었다. 이 시설물 또한 기존의 건물지에 시멘트를 덧씌워 시설했는지 다시 신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트렌치 내부와 주변에서는 다량의 기와편이 확인되었으며 기와편 중 명문와도 확인되었다.



도면 6. 트렌치 1,2 유구배치도

3) 트렌치 3

트렌치 3은 1109번지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트렌치 2와 같은 방향으로 6m 이격하여 2×20m의 규모로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2에서 한단 올라와 있으며 북서쪽으로 축대가 조성되어 있다. 트렌치 내부 북동쪽의 토층을 살펴보면 경작층 하단으로 교란층이 확인되었으며 교란층 하단으로 명갈색사질점토층이 확인되었다. 특히 암반층이 발달되어 있어 바닥이 고르지 못하다. 트렌치 내부 암반과 암반사이에서는 교란이 흔적이 뚜렷이 관찰되고 있으며 트렌치 북동쪽 끝으로 축대를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시설이 확인되었다. 계단시설은 잘 치석된 현무암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할석의 크기는 20~30cm이다. 계단시설의 폭은 약 180~190cm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트렌치 내부에서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기와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4) 트렌치 4

트렌치 4는 조사대상지 남서쪽 1109-6번지 내에 지장물을 피해 N58°E 방향으로 2×5m의 규모로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조사결과 경작층 하부로 풍화암 반층이 바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암반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5) 트렌치 5

트렌치 5는 1109번지보다 한단 올라온 1108번지에 설치하였으며 지면을 경계로 1m이상의 축대가 축조되어 있다. 트렌치는 N41°E 방향으로 2×20m로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남서쪽의 단면에 대한 토층조사결과 경작층하단으로 교란층이 확인되고 있다. 교란층 내부에서는 폐건축물을 비롯하여 현무암 할석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교란층 하단으로 명갈색사질점토층-풍화암반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교란층은 북동쪽으로 갈수록 두터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암반층이 발달되어 있다. 트렌치 조사결과 자연퇴적층은 북동쪽으로 갈수록 교란층의 영향으로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암반층이 바로 확인되었으며 트렌치 내부에서는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6) 트렌치 6

트렌치 6은 1108-28번지에 설치하였다. 조사대상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트렌치는 N55°E 방향으로 2×18m로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북동쪽 단면에 대한 토층조사결과 경작층 하부로 복토층이 확인되었으며 복토층하부로 풍화암 반층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조사결과 자연퇴적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거 도로를 조성한 흔적만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내부에서는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7) 트렌치 7

트렌치 7은 1108-28번지에 설치하였으며 지면 남쪽경계로 높은 축대가 형성되어 있다. 축대의 하부를 축조할 때 쓰인 현무암 할석이 1m 이상으로 제주성의 일부로 추정되어 축대에 맞대어 2×15m의 트렌치를 구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북동쪽 단면에 대한 토층조사결과 경작층 하부로 복토층이 확인되었으며 복토층 하부로 풍화암 반층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조사결과 트렌치 내부로 자연퇴적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복토층 하부로 암반층이 바로 확인되었다. 축대 하부구조는 대형현무암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암반층 위에 바로 축조를 하였다. 암반층과 암반층 사이의 띠자 지형에서는 30cm 내외의 현무암 할석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 후 1m이상의 대형 할석으로 축조를 하였다. 트렌치 내부에서는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IV.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09번지 외 5필지로 지리적으로는 동경 126°31'44.49"~126°31'45.04", 북위 33°30'40.98"~ 33°30'43.25"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인 운주당터는 제주시 북부 중앙부에 위치하는 동문로타리 동남쪽에 위치한다.

2. 조사대상지는 남고북저의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으로 지형에 맞춰 단을 지어 축대를 축조하여 지면을 비교적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조사대상지 내부로 지형과 각 지번의 땅 모양의 장축방향에 맞춰 총 7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지내의 층위는 가장 안정적으로 퇴적된 1109번지에서 확인된 층위를 기준으로 3개의 층이 확인되었다. 경작층 하단으로 문화층인 명갈색점토층-풍화암반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지대가 높은 1108번지, 1108-28번지, 1109-6번지 내의 트렌치 3~7의 경우 자연퇴적층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대부분 교란으로 인하여 자연퇴적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란층 하단으로 바로 암반층이 확인되었다.

4. 조사결과, 트렌치 1과 트렌치 2 내부에서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트렌치 1에서는 남서쪽으로 시멘트가 덧씌워진 건물지 일부가 확인되었다. 트렌치 2에서 확인되는 건물지의 일부로 추정된다. 트렌치 2 내부에서는 초석을 비롯하여 건물지 내부 부속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건물지 양단으로 구들이 확인되었으며 구들 상부로 판석을 이용한 구들장이 양호하게 확인되었다. 구들의 규모는 550×370cm로 확인되었다. 트렌치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잔존규모는 측면이 1칸으로 약 370cm로 확인되었다. 정면은 알 수 없으나 양 끝에 노출된 기단석렬의 간격은 측면이 5m, 정면은 23.2m로 확인되었다. 다만,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을 확장하게 되면 건물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트렌치 3~7에서는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5. 출토유물은 크게 기와류와 자기류로 구분되는데 주로 건물지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와류로 수키와와 암키와가 주로 확인되고 있다. 명문와는 '守城○', '壬申二月', '大夫金冲光' 등의 명문이 확인되었으며 기와의 문양은 수지문, 창해파문과 복합문이 시문된 기와가 확인되었다. 자기류로는 백자 구연부편과 저부편이 확인되었다.

6. 시굴조사결과 온돌시설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19C 말~20C 초 사이에 개 보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온돌시설 역시 그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사대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기와의 문양이나 명문 등은 제주목관아¹⁸⁾, 제주성지 정비 공사부지¹⁹⁾, 영주관객사지²⁰⁾ 등에서 출토된

18)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濟州牧官衙址』.

기와와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어 제주성내의 중요시설 중 하나로 판단된다. 따라서 발굴 조사를 통해 건물지의 규모 구조 등의 성격을 파악하고 운주당과의 정확한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19)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성지 정비 공사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 20)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2차)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V. 조사단 의견

1.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09번지 외 5필지로 지리적으로는 동경 126°31'44.49"~126°31'45.04", 북위 33°30'40.98"~ 33°30'43.25"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인 운주당터는 제주시 북부 중앙부에 위치하는 동문로타리 동남쪽에 위치한다.

2. 조사대상지는 남고북저의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으로 지형에 맞춰 단을 지어 축대를 축조하여 지면을 비교적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조사대상지 내부로 지형과 각 지면의 땅 모양의 장축방향에 맞춰 총 7개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지내의 층위는 가장 안정적으로 퇴적된 1109번지에서 확인된 층위를 기준으로 3개의 층이 확인되었다. 경작층 하단으로 문화층인 명갈색점토층-풍화암반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지대가 높은 1108번지, 1108-28번지, 1109-6번지 내의 트렌치 3~7의 경우 자연퇴적층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대부분 교란으로 인하여 자연퇴적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란층 하단으로 바로 암반층이 확인되었다.

4. 조사결과, 트렌치 1과 트렌치 2 내부에서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트렌치 1에서는 남서쪽으로 시멘트가 덧씌워진 건물지 일부가 확인되었다. 트렌치 2에서 확인되는 건물지의 일부로 추정된다. 트렌치 2 내부에서는 초석을 비롯하여 건물지 내부 부속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건물지 양단으로 구들이 확인되었으며 구들 상부로 판석을 이용한 구들장이 양호하게 확인되었다. 구들의 규모는 550×370cm로 확인되었다. 트렌치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잔존규모는 측면이 1칸으로 약 370cm로 확인되었다. 정면은 알 수 없으나 양 끝에 노출된 기단석렬의 간격은 측면이 5m, 정면은 23.2m로 확인되었다. 다만,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을 확장하게 되면 건물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트렌치 3~7에서는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5. 출토유물은 크게 기와류와 자기류로 구분되는데 주로 건물지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와류로 수키와와 암키와가 주로 확인되고 있다. 명문와는 '守城○', '壬申二月', '大夫金冲光' 등의 명문이 확인되었으며 기와의 문양은 수지문, 창해파문과 복합문이 시문된 기와가 확인되었다. 자기류로는 백자 구연부편과 저부편이 확인되었다.

6. 시굴조사결과 온돌시설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19C 말~20C 초 사이에 개 보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온돌시설 역시 그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사대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기와의 문양이나 명문 등은 제주목관아²¹⁾, 제주성지 정비 공사부지²²⁾, 영주관객사지²³⁾ 등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어 제주성내의 중요시설 중 하나로 판단된다. 따라서 발굴 조사를 통해 건물지의 규모 구조 등의 성격을 파악하고 운주당과의 정확한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금번 조사된 운주당 유적은 제주성내 제주목 관아와 관련된 주요시설로 판단되며 유구가 집중적으로 확인된 일도1동 1109·1109-6·1110-12번지 1,030㎡에 대해서는 전체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1)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濟州牧官衙址』.

22)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성지 정비 공사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3)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2차)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자문위원 의견서

1. 제주성 운주당유적 시굴조사

-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17: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09번지 시굴조사 현장
- 자문위원: 차용걸(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양상호(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1) 유적 현황 및 성격

-Tr2에서 20세기 중엽까지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건물지의 초석·구들이 나타났으며, 이 Tr2의 내부와 주변에서 “守城○”, “壬申二月”, “大夫金冲光”등 명문기와가 출토되는 양상을 보임. Tr 5,6,7 지역은 이미 지형 훼손으로 유구 징후가 없음.

2) 조사기관 의견 검토

-제주성내의 주요시설과 관련된 유구로 판단하고 발굴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타당성이 있음.

3) 추가 의견

-유구 부존의 징후가 없는 Tr 5, Tr 6, Tr 7 구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구역(Tr 2의 동북쪽 대지, 서남쪽 대지)은 그 동측이 운주당길로 불렸고, 서남측에 표지석(운주당터)이 세워졌던 사실이 있으므로 발굴조사 구역에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임. 최근까지의 지사(地史)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차후 보고서에 반영함이 좋겠음.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제주성 운주당유적 시굴조사 (제2015-0305)		
유적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09번지 외 5필지		
조사 면적	2,047 m ²	조사기관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조사 기간	2015.04.19~2015.07.01	회의 일시	2015.06.25
유적 현황 및 성격	Tr2에서 20세기 중엽까지 사용되었던 알려진 건물터의 초석· 기둥이 나타났으며, 이 Tr2의 내부구변에서 "유대0", "유대 1", "유대2" 등 명문기타가 출토되는 양상을 보임. Tr 5, 6, 7 지역은 이미 사명 채취으로 유구 정황이 불명.		
조사기관 의견 검토	저주당내의 구묘 사선과 관련된 유구로 판단하고 발굴과 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견 은 매우 타당성이 있음.		
추가 의견	유구 부호의 정황이 없는 Tr5, Tr6, Tr7 구역은 제머리 나머지 전체구역 (Tr2의 동북쪽 대지, 서남쪽 대지)은 그동안 운주당길로 보였고, 서남쪽에 돌리석 (운주당 터) 이 세워졌던 사 이 있으므로 발굴된 구역에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임. 하루까지 지사(대장) 관련 자료도 수집하여 이후 발굴이 반영함이 중요함.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차 용 결	충북	(인)
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과	양 상 호		(인)
			(인)
2015년 6 월 25 일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 ②)



도판 2. 조사대상지 전경(① : 1108, 1109번지 일대, ② : 1108-28번지 일대)



도판 3. 트렌치 1(① : 조사 전 전경, ② : 조사 후 전경, ③ : 토층)



도판 4. 트렌치 2(①, ②: 조사 전 전경)



도판 5. 트렌치 2(① : 조사 후 전경, ② : 서편 구들 시설 전경, ③, ④: 서편 구들 시설 하부 구조, ⑤ : 동편 구들 시설 전경, ⑥ : 동편 구들 시설 세부, ⑦: 동편 구들 시설 벽석)



도판 6. 트랜치 2(① : 초석 배치 모습 및 세부)



도판 7. 트렌치 2 외곽 초석(①~④), 트렌치 2(①: 조사 후 전경)



도판 8. 트렌치 3(①, ② : 조사 전 전경)



도판 9. 트렌치 3(① : 조사 후 전경, ② : 서편 축대, ③ : 동편 축대, ④, ⑤ : 후대건물지, ⑥ : 토층, ⑦ : 출토유물)



도판 10. 트렌치 4(① : 조사 전 전경, ② : 조사 후 전경, ③ : 토층)



도판 11. 트렌치 5(① : 조사 전 전경, ② : 조사 후 전경, ③ :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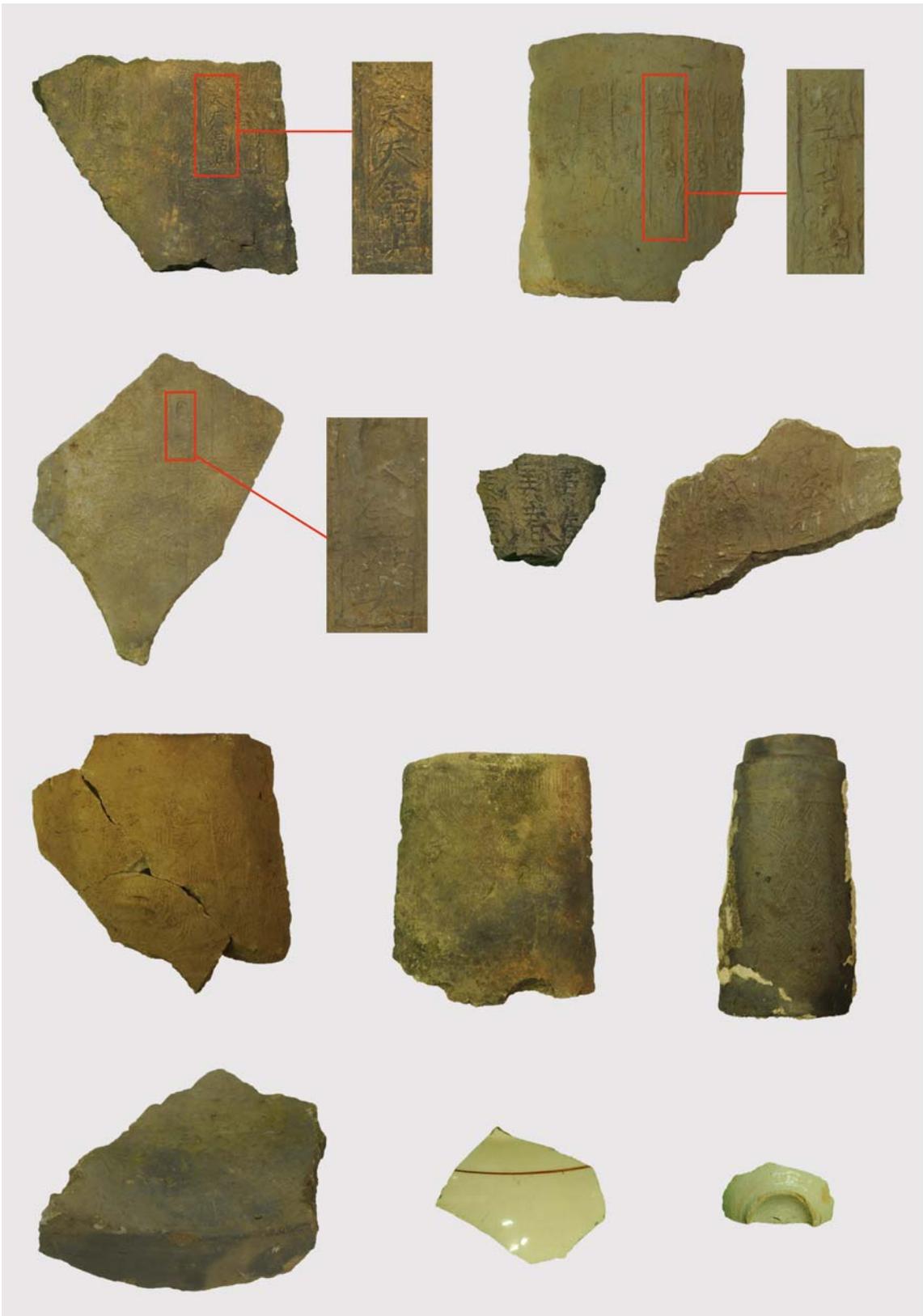
도판 12. 트렌치 6(① : 조사 전 전경, ② : 조사 후 전경, ③ : 토층)



도판 13. 트렌치 7(① : 조사 전 전경, ② : 조사 후 전경, ③, ④ : 트렌치 남편 돌담, ⑤: 토층)



도판 14. 자문회의의 전경(①, ②)



도판 15. 조사대상지내 출토유물

發掘調查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제주성 운주당 유적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發刊日	2015年 6月 日
發刊機關	名稱	(재)제주고고학연구소			
	住所	(690-1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23길 1 (일도2동) 3층			
	TEL	(064) 711-9996	FAX	(064) 712-9984	
執筆· 編輯者	강창화·김용덕·윤중현·오원홍·송주란·고정우				
調査緣由	제주성 운주당 유적 시굴조사				
發掘調査者	강창화·김용덕·윤중현·오원홍·송주란·고정우				
所在地番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09번지 외 5필지				
調査面積	2,047㎡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건물지	조선시대	1동	명문와	·	

제주성 운주당유적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발행 : 2015年 6月 日

편집·발행 :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690-1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23길 1(일도2동) 3층
TEL. (064)711-9996 FAX. (064)712-9984

The Excavation Report of the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Vol. 2015-11



2015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Jeju, Korea